

로잔 언약 전문(1974)

머리말

로잔에서 열린 세계 복음화 국제대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150여 개국에서 모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는 그 크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누게 하신 것으로 기뻐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행하시는 일에 깊은 감동을 받으며 우리가 행한 실패들을 통회하고 아직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복음화 사역에 도전을 받는다. 우리는 복음이 온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믿으며 이 복음을 온 인류에게 선포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분부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그분의 은혜로 결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앙과 결단을 확인하고 이 언약을 공포하려 한다.

1. 하나님의 목적

우리는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주 되신 영원한 한 분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한다. 하나님은 뜻하신 목적에 따라 만물을 통치하신다. 그분은 자기를 위해 세상에서 한 백성을 불러내시고 다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그리스도의 몸 건설,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한 종과 증인이 되게 하신다. 우리는 종종 세상과 동화하든가 혹은 절연함으로써 우리 소명을 부인하고 선교사역에 실패했음을 부끄럽게 여기며 고백한다. 그러나 복음은 비록 질그릇에 담겼을지라도 귀중한 보화임을 기뻐하며 이 보화를 성령의

능력으로 널리 알리는 과업에 우리 자신을 새롭게 헌신하고자 한다.

(사 40:28, 마 28:19, 엡 1:11, 행 15:14, 요 17:6·18, 엡 4:12, 롬 12:2, 고전 5:10, 고후 4:7)

2. 성경의 권위와 능력

우리는 신구약 성경의 신적 영감과 진리성, 권위를 믿는다. 성경은 그 전체가 하나님의 유일한 기록된 말씀으로 그 모든 주장하는 바에 전혀 오류가 없으며,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유일하게 오류가 없는 규범임을 믿는다. 또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그분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심을 확신한다. 성경 말씀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는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계시를 통해 성령님은 오늘도 말씀하신다. 성령님은 모든 문화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조명하셔서 이 진리를 그들의 눈으로 새롭게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양의 지혜를 온 교회에 더 풍성하게 나타내신다.

(딤후 3:16, 벡후 1:21, 사 55:11, 롬 1:16, 고전 1:21, 요 10:35, 마 5:17-18, 유 3, 엡 1:8·17, 3:10-18)

3.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보편성

전도 방법은 여러 가지이나 구주는 오직 한 분이요, 복음도 오직 하나임을 우리는 확인한다. 우리는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에 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

는 사람들이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불의로 진리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한 여하한 형태의 혼합주의와 그리스도가 모든 종교와 이데올로기를 통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의미를 내포한 대화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손상시키므로 거부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신인(神人)으로 죄인을 위한 유일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없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멸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 원하신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는 구원의 기쁨을 거부하고 스스로 정죄함으로써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떠난 자이다. 예수님을 '온 세상의 구주'로 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혹은 궁극적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며, 더구나 모든 종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제공한다고 보장하는 것도 아님을 확인한다. 예수님을 온 세상의 구주로 전하는 것은 오히려 죄인들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며 마음을 다한 회개와 신앙에 의한 인격적 헌신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맞이하도록 모든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높임을 받으셨으며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그분을 주로

고백하게 되는 날을 간절히 고대한다. (갈 1:6-9, 롬 1:8-32, 딤후 2:5-6, 행 4:12, 요 3:16-19, 벵후 3:9, 살후 1:7-9, 요 4:42, 마 11:28, 엡 1:20-21, 빌 2:9-11)

4. 전도의 본질

전도한다는 것은 기쁜 소식을 널리 퍼뜨리는 것이다. 여기서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사 통치하시는 주이시며 지금도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죄 사함과 성령님의 자유케 하는 은사를 공급하신다는 것이다. 세계 속의 그리스도인의 현존은 전도에 불가결한 것이며, 또한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 경청하는 목적의 대화도 불가결한 것이다. 그러나 전도 그 자체는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서 선포하여 사람들이 그분께 개인적으로 와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도록 설득하는 일이다. 복음의 초대에 제자로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감추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의 새로운 공동체와 동일시함을 분명히 하도록 부르신다. 전도의 결과는 그리스도께 순종함과 교회와의 협력, 세상 안에서의 책임 있는 봉사를 포함한다.

(고전 15:3-4, 행 2:32-39, 요 20:21, 고전 1:23, 고후 4:5, 고후 5:11·20, 눅 14:25-33, 막 8:34, 행 2:40·47-8, 막 10:43-45)

5.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창조자이신 동시에 심판자이심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사회 전체에 정의와 화해를 구현하시고, 인간을 모든 종류의 압박에서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관심을 공유해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인종, 종교, 피부색, 문화, 계급, 성 또는 연령의 구별 없이 누구나 타

고난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서로 존경과 섬김을 받아야 하며 누구도 착취당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점을 등한시해 온 것과 종종 전도와 사회 참여가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한 데 대해 참회한다. 사람과의 화해가 곧 하나님과의 화해는 아니며, 사회 활동이 곧 전도가 아니며, 정치적 해방이 곧 구원이 아닐지라도 전도와 사회□정치적 참여는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의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모두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우리의 교리, 이웃을 위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순종의 필수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또한 구원의 메시지는 모든 종류의 소외와 압박과 차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내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과 부정이 있는 곳 어디서나 그것을 비난하는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의 나라에 중생하며,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그 나라의 의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전파하기에 힘써야 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구원은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총체적으로 감당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 17:26·31, 창 18:35, 시 45:7, 사 1:17, 창 1:26-27, 레 19:18, 레 19:18, 눅 6:27·35, 약 3:9, 요 3:3·5, 마 5:20, 마 6:33, 고후 3:18, 약 2:14-26)

6. 교회와 복음 전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는 그분의 구속 받은 백성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한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깊고도 희생적으로 침투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비기독교 사회에 침투해 들어가야 한다.

교회가 희생적으로 해야 할 일 중에서 최우선은 전도다. 세계 선교는 모든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할 것을 요구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우주적 목적의 중심에 있으며, 복음을 전파할 도구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를 설교하는 교회는 스스로 십자가의 흔적을 지녀야 한다. 교회가 만일 복음을 배반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살아 있는 믿음이 없다면, 사람들에게 대한 진실한 사랑이 없다면, 사업 추진과 재정 등 모든 일에 있어서 철저한 정직성이 결여될 때, 교회는 오히려 전도의 걸림돌이 되어 버린다. 교회는 기관이라기보다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이며, 어떤 특정한 문화적, 사회적, 또는 정치적 제도들이나 인간의 이데올로기와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요 17:18, 20:21, 마 28:19-20, 행 1:8, 20:27, 엡 1:9-10·3, 9-11, 갈 6:14·17, 고후 6:3-4, 딤후 2:19-21, 빌 1:27)

7. 전도를 위한 협력

교회가 진리 안에서 가시적으로 하나됨을 이룩하는 일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우리는 확인한다. 또한 전도도 우리를 하나 되도록 부르는데, 우리가 전하는 화해의 복음을 불일치가 무너뜨리지만, 하나 됨은 우리의 증거를 더욱 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직적 일치는 여러 가지 형태를 띠 수 있고, 그것이 반드시 전도를 증진시키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인정한다. 그럼에도 동일한 성경적 신앙을 함께하는 우리는 교제와 일과 증거에 있어서 긴밀하게 하나 되어야 한다. 우리의 증거가 때로는 죄악 된 개인주의와 불필요한 중첩 때문에 저해 되었음을 고백한다. 우리는 진리와 예배와 거룩함, 선교에 있어서 좀 더 깊은 일치를 추구할 것을 서약한다. 교회의 선교를 촉진하기 위

해 그리고 자원과 경험을 서로 나누기 위해 지역적이고 기능적인 협력을 발전시킬 것을 촉구한다.

(요 13:35, 17:21-23, 엡 4:3-4, 빌 1:27, 요 17:11-23)

8. 교회의 선교 협동

새로운 선교의 시대가 동트고 있음이 기쁘다. 서방 선교의 주도적 역할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하나님은 신생 교회들 중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거대한 새로운 자원을 불러일으키고 계시며, 전도의 책임이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속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자신이 속한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 또한 세계 다른 지역에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과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우리의 선교 책임과 역할에 대한 재평가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로 말미암아 교회들 사이의 협동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교회의 보편적 성격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성경 번역, 신학 교육, 매스미디어, 기독교 문서 사역, 복음 전도, 선교, 교회 갱신, 그리고 기타 전문 영역에서 일하는 여러 단체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단체들도 교회 선교의 한 부분으로서 효율성을 평가하도록 지속적으로 자기를 반성해야 한다.

(롬 1:8, 빌 1:5, 4:15, 행 13:1-3, 살전 1:6-8)

9. 복음 전도의 긴박성

전 인류의 3분의 2 이상인 27억 이상의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아직도 등한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와 온 교회에 대한 끊임없는 견책이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많은 지역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례 없이 수용하고 있다. 지금이 바로 교회와 모든 선교 단

체가 미전도 종족 구원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세계 복음화를 성취하기 위해 새로운 노력을 시작해야 할 때임을 확신한다. 토착 교회의 자립심을 기르고 아직 미복음화된 지역으로 그 자원을 보내기 위해 때로는 이미 복음화된 나라들의 해외 선교사와 선교비를 감축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선교사들은 겸손한 섬김의 정신으로 더욱 자유롭게 육대주에서 교류해야 할 것이다. 목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급적 단기간에 모든 사람이 좋은 소식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다. 희생 없이 이 목표를 성취하겠다는 기대는 없다. 우리 모두는 수백만이 겪고 있는 빈곤에 충격을 받으며, 이를 발생시키는 불의에 분노한다. 우리 중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은 구제와 전도에 더 많이 공헌할 수 있도록 검소한 생활 양식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 의무임을 수용한다.

(막 16:15, 요 9:4, 마 9:35-38, 사 58:6-7, 약 2:1-9, 고전 9:19-23, 약 1:27, 마 25:31-46, 행 2:44-45, 4:34-35)

10. 전도와 문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략 개발에는 창의적인 개척 방법이 요청된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인도 아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박히면서 자신들의 문화와도 긴밀하게 관련된 교회들이 일어날 것이다. 문화는 항상 성경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판단해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떤 문화는 대단히 아름답고 선하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 때문에 전부 죄로 물들었고 어떤 것은 악마적이다. 복음은 어떤 한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복음은 모든 문화를 복음 자체의 진리와 정의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모든 문화의 도덕적 절대성을

주장한다. 선교는 이제까지 복음과 함께 이질적 문화를 수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하여 교회는 종종 성경에 매이기보다 문화에 매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스도의 전도자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도록 자신의 가장 진실된 인격을 제외한 모든 것을 겸손히 내려놓도록 힘써야 한다. 그리하여 교회는 문화를 변형시키고 풍요하게 만들려고 힘쓰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

(막 7:8-9, 13, 창 4:21-22, 고전 9:19-23, 빌 2:5-7, 고후 4:5)

11. 교육과 지도력

우리는 때로 교회의 깊이를 포기하면서 성장만을 추구해 왔고, 그리스도인의 양육과 복음 전도를 분리해 왔음을 고백한다. 또한 일부 선교현장에서는 현지 지도자들에게 마땅한 책임을 감당하도록 훈련하고 격려하는 일에 태만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제는 토착화 원리에 헌신하며 모든 교회가 현지 지도자를 세워 그들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지도력 방식을 보여주기를 고대한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를 위한 신학 교육을 향상할 필요가 큼을 인정한다. 모든 나라와 문화에서 교리, 제자 훈련, 전도, 양육, 섬김의 영역에 목사와 평신도를 위한 효과적인 훈련 프로그램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런 훈련 프로그램은 전형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성경의 기준을 따라 지역 독창성에 맞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골 1:27-28, 행 14:23, 딤후 1:5·9, 마 10:42-45, 엡 4:11-12)

12. 영적 싸움

우리는 악의 권세, 능력들과의 부단한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믿는다. 이들은 교회를 전복시키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교회의 과업을 좌절시키려

고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진리와 기도의 영적 무기를 가지고 이 싸움을 싸워야 할 필요를 알고 있다. 이는 교회 밖의 거짓 이데올로기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왜곡시키며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거짓 복음으로 대적들이 활동하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적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 깨어 있고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세속적 생각과 행위들, 즉 세속주의에 면역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예를 들면 양적, 영적인 교회 성장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정당하고 가치 있는 일임에도 우리는 때때로 이를 소홀히 했다. 또 복음에 대한 반응을 얻어내는 것에만 집착해서 메시지를 타협했고 강압적 기교를 통해 청중을 조종했으며 지나치게 통계에 집착하거나 혹은 부정직한 통계를 만들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이 세상적이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 하지만 세상이 교회 속에 있어서 는 안 된다.

(엡 6:12, 고후 4:3-4, 엡 6:11, 13-18, 고후 10:3-5, 요일 2:18-26, 4:1-3, 갈 1:6-9, 고후 2:17, 4:2, 요 17:15)

13. 자유와 핍박

모든 정부는 교회가 간섭 받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 그리스도를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도록 평화와 정의와 자유의 상태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하나님께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나라 지도자를 위해 기도한다. 우리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보편적 인권 선언에 규정한 바와 같이 종교를 믿고 전파할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을 그들에게 요청한다. 우리는 또한 부당하게 투옥된 사람들,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고난 받는 사람들을 위해 깊은 우려를 표명

한다. 우리는 그들의 자유를 위해 기도하며 힘쓸 것을 약속한다. 동시에 우리는 그들의 운명을 위협하는 어떤 것도 거부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불의에 항거하며 복음에 힘써 충성할 것이다. 핍박이 반드시 함께할 거리는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다.

(딤후 2:1-4, 골 3:24, 행 4:19, 5:2, 히 13:1-3, 눅 4:18, 갈 5:11, 6:12, 마 5:10-12, 요 15:18-21)

14. 성령의 능력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믿는다. 성부께서는 성자를 증거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신다. 성령님의 증거가 없으면 우리의 증거도 헛되다.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으며, 새로 탄생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는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자기 모순에 빠지고 성령님을 소멸케 한다. 세계 복음화는 오직 성령님이 교회를 진리와 지혜, 믿음과 거룩함, 사랑과 능력으로 새롭게 할 때에만 이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 기도할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한다. 성령님의 모든 열매가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고, 그분의 모든 은사가 그리스도의 몸을 풍성하게 하도록 기도할 것을 호소한다. 그때에 비로소 온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합당한 도구가 될 것이고, 온 땅은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행 1:8, 고전 2:4, 요 15:26-27, 16:8-11, 고전 12:3, 요 3:6-8, 고후 3:18, 요 7:37-39, 살전 5:19, 시 85:4-7, 갈 5:22-23, 롬 12:3-8, 고전 12:4-31, 시 67:1-3)

15.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권능과 영광 중에 인격적으로 그리고 가시적으로 재림하시어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실 것을 믿는다. 이 재림의 약속은 우리의 복음 전도를 가속화하는데, 이는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의 중간 기간은 종말이 오기 전에는 일을 멈출 자유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교로 채워져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또한 마지막 적 그리스도의 선행자로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리라는 경고를 기억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이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생각을 교만과 자기 확신의 환상으로 간주하여 거부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온전케 하실 것을 확신하며 공의가 거하고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실 그날과 새 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고대한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시는 그리스도의 권위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에 우리를 재헌신한다.

(막 14:62, 히 9:28, 막 13:10, 마 28:20, 행 1:8-11, 막 13:21-23, 요일 2:18, 4:1-3, 눅 12:32, 계 21:1-5, 벡후 3:13, 마 28:18)

맺는 말

그러므로 이와 같은 신앙과 결심에 따라 우리는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계획하고, 일할 것을 하나님과 우리 상호 간에 엄숙히 언약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할 것을 호소한다.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이 언약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우시기를 기도한다. 아멘, 할렐루야!